

사례로 보는 식중독 이야기(8.16~8.31)

채소 너 마저..



여름방학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학교

2016년 8월 말에서 9월 초 기록적
폭염속에 전국 2,020명의 학생들이 구토와
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



급식으로 나온
오이부추무침, 야채샐러드를
먹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에
걸렸기 때문입니다.



지속된 폭염 속에
병원성대장균에 **오염된 채소**를
충분히 살균 세척하지 않았거나,
상온에 방치 후 섭취했기
때문입니다.



더운 여름 채소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!

1. 염소소독액에 5분간 담그기
2. 흐르는 물에 3회 세척 후 절단하기
3. 세척후 상온 2시간이상 방치 금지
4. 가급적 데치고 삶아서 먹기

